

천안 7·8전투 전몰미군용사 추모식

충남 천안지회... 한국전쟁 시 천안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미군용사들 추모

단신

행복지킴이 봉사 활동
충북 충주지회회는 9일 산척면 흠뻑어르신 집에서 식료품 전달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 연서면분회는 6일 관내 독거노인 10가구를 방문,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

충북 영동군지회는 4일 소외계층을 찾아 주거환경 정리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충북 진천군지회는 2일 장애인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집안청소 및 설거지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북 음성군지회는 6월 25일 독거노인 댁에서 봉사 활동을 벌였다.

무료급식 봉사

대전 중구 여성회는 9일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빵 나눔봉사

충남 공주시지회는 6일 직접 만든 빵과 구입한 음료, 과일 등을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자유회관 환경개선

세종시지부는 4일 세종자유회관 방수 및 페인트 공사를 완료, 글로벌리더연합 대학생들과 함께 잔해 제거 및 환경미화를 실시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

충북 청주시 사직2동분회는 4일 금관리 소재 들깨농가를 방문, 들깨 파종과 주변 환경정비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꽃길 가꾸기 봉사

세종시 연서면분회는 2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을회관 앞 화단에서 꽃심기, 잡초제거 등 봉사 활동을 폈다.

충남 천안지회(회장 장규용)는 8일 삼룡동 마틴공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천안에서 산화한 전몰미군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이정문 국회의원,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장규용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들의

송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런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6·25전쟁 당시 장렬하게 산화한 미육군 마틴 대령과 128명 병사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천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추도했다.



KFF 글로벌리더 환경정화 캠페인

| 세종시지부 |

세종시지부(회장 최충신) KFF 글로벌리더연합 대학생 봉사단원 11명은 4일 세종시민의 휴식처인 고북저수지 일대에서 국토청결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최충신 회장은 “KFF 글로벌리더들이 신선한 감각과 역

동성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지식나눔 봉사, 국토청결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파농가 일손봉사활동

| 충북 제천시지회 |

충북 제천시지회(회장 안병만)는 6월 20일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천시 한수면 양파농가에서 수확 등 생산적 일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농가주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이 제한되면서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바쁜 일도 많을 텐데 일손을 보태줘 한시를 덜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행복지킴이 운영회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 세종시지부 |

세종시지부 여성협의회(회장 백인영)는 6월 26일 세종자유회관에서 '2020 공동체 행복지킴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연기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말벗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 대전 유성구지회 |

대전 유성구지회(회장 이호근)는 6월 29일 조직간부 20명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통해 소독제 30개, 향균물티슈 30개 등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전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다.



고연수·박순천 청년·여성회장 취임식

| 충남 당진시지회 |

충남 당진시지회(회장 김국환)는 6월 20일 메가뷔페에서 조직간부 및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고연수 청년회장과 제8대 박순천 여성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종덕 청년회장과 전경숙

여성회장의 이임식을 겸한 이날 지부 김현기 부회장은 “충남 청년회의 평균 연령이 25세로 전국에서 제일 젊은만큼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여성회는 늘 적극적으로 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